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한 4,13-14)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후안 데 플란데스(Juan de Flandes),  
파리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제1독서] ..... 탈출 17,3-7

[제2독서] ..... 로마 5,1-2,5-8

[화답송] ..... 시편 95(94),1-2,6-7,11-12,7-9  
(◎ 7과 8)

[복음 환호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복음] ..... 요한 4,5-42  
〈또는 4,5-15,19-26,39-40-42〉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21] 한 많은 슬픔에
  -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 성체성가: [182] 신묘하온 이 영적  
[183] 구원을 위한 희생
  - 파견성가: [280] 성요셉 찬양하세

### 숫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그때에 <sup>5</sup>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렀다. <sup>6</sup>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sup>7</sup>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sup>8</sup>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sup>9</sup>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sup>10</sup>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sup>11</sup>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sup>12</sup>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sup>13</sup>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렀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sup>14</sup>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sup>15</sup>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sup>19</sup>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sup>20</sup>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sup>21</sup>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sup>22</sup>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sup>23</sup>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sup>24</sup>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sup>25</sup>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sup>26</sup>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sup>39</sup>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sup>40</sup>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들을 머무르셨다. <sup>41</sup>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sup>42</sup>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 묵상

오늘 복음에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여인의 반응은 차가웠지요.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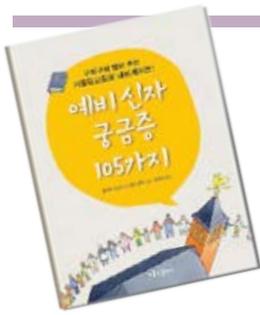
예수님께서 영적인 물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하시자 여인은 마음을 조금 엽니다.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대화가 조금 진전되자, 예수님께서서는 극적인 전환을 모색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이 말씀에 여인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조금 뜨게 된 여인은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벽에 부딪히고는 자신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눈에 보이는 장소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을 공경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여인은 물동이마저 버립니다. 자신 안에 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여인은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는 그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 죄악마저 스스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다른 이들의 결점, 조그만 티끌만을 보다가 마지막에야 자신의 커다란 들보를 발견하지요. 처음부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항상주보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가톨릭 교회 · 성경 상식을 연재합니다. 연재 내용은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줄리아 크노프 글, 로프 분제 그림, 조규홍 옮김, 가톨릭출판사) 에서 발췌되며, 매 주일 미사 후 백인현 주임 신부님과 성원경 보좌 신부님께서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십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 Q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오경**은 천지창조 때부터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는 시점까지의 이야기를 전한다.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과 그 이후 국가를 세우고 살다가 멸망해 유배를 체험하고, 그 유배에서 돌아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겪은 역사를 담았다.



**시서와 지혜서**는 하느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표현한 문학 작품이다.



**예언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람들이 지은 죄와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알려 주는, 즉 하느님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의 책이다.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쓰였지만, **아람어**(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의 언어)로도 일부 기록되었다!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전해졌다(예를 들면 ‘칠십인역 성경’이 있다). 그 후 그리스어로 된 신·구약 성경은 중세 시대의 교회 언어였던 라틴어로 번역되었는데, 이를 ‘불가타 성경’이라고 한다. 오늘날 미사 전례나 다양한 기도문에서 이 라틴어 번역의 독특한 말투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서로 다른 언어로 성경을 읽고 기도문을 외더라도, 오래전 신앙인들의 정신을 그 표현과 말투에서 엿볼 수 있다.

바라셨기 때문이다. 이 계약에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항상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백성은 하느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지키기로 하였다. 이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관계가 유지된 셈이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탈출 19,5) 이렇듯 하느님은 노아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으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다. **이 세가지 약속, 즉 계약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 ‘구약’은 말 그대로 ‘옛 계약’이라는 뜻인데,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을 말한다. 하느님은 구약시대에 세 번에 걸쳐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셨다고 성경은 전해 준다.

첫번째 계약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느님이 노아와 약속하셨던 사건을 말한다. 대홍수가 끝날 무렵 하느님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노아와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창세 9,8-17).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며 그와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두번째 계약이다(창세 15,18). 하느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창세 15,5)

또 많은 세월이 흐른 후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는데, ‘탈출기’에서 이에 대해 전해 준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이 약속에 대해 직접 말씀하셨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태어나,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기를

그 밖에도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함께 겪었던 여러 사건이 나온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은 계명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잘 지킨다면 하느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든든히 지켜 주실 것이다. 사실 이 계명은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많은 기도문과 찬미가가 들어 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동안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임금들, 판관들, 예언자들의 이야기도 적혀 있다.

**창세기 1,1-4** 성경 구절을 표시하는 장과 절에도 의미가 담겨있다! 장은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어 끝나는 큰 단락이다. 그리고 절은 한두 문장으로 된 부분이다. 장은 약 800년 전부터 표시되었고, 절은 이보다 늦은 약 500년 전부터 표시되었다. 때때로 성경의 여러 책은 제목이 다소 길어서 제목을 간단히 줄여서 적는다. 예를 들면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은 ‘1코린’으로 줄여 적는데, 특히 괄호( )안에 표기할 때 그러하다.

## 3월 소공동체 모임 소식

지난 3월 11일(토)에 소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태 복음(17,1-9)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사랑과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 **웹어팩스 3구역**

김영술 아놀드/김생금 레지나 부부댁에서 열린 구역합동 모임에 46명의 구역식구들이 참석했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사순 시기를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자”고 전했다. 5월의 장터 한마당에 관해 의견을 나누며 즐거운 친교 시간을 가졌다.



• **웹어팩스 2구역 1반**

전영완 루카 형제댁에서 9가정 20명의 구역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전하는 복음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나누었다. 사순시기를 맞아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라우든 구역 2반**

김재호 라우덴시아/마리아 부부댁에서 13가정 30명의 구역식구들이 모여 복음 말씀을 나누고 성경 필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했다. 해 베이비 샤워 뜻깊은 시간을



• **스프링필드**

장 라파엘 형제댁에서 17명이 참석하여 복음 묵상을 나누고 즐거운 친교 시간을 가졌다.



말씀사탕과 함께, 달콤한 한 주기를 보내세요!! 바오로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바오로회에서 본당의 모든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을 위해 말씀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살찌지 않는 맛있는 '성경 말씀 사탕'을 가져 가세요.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은총의 사순 시기를 보내세요.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위해 저희 바오로회가 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 단체장 회의

단체장 회의가 지난 12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신부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실천하자”고 전했다. 또 “꼭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사순 특강에 참석하기, 판공성사 보기 그리고 성주간 전례에 참여하기 등에 대해 말했다. 특히 “성삼일 꼭 지키기”를 예로 들며 단체장들이 회원들은 물론 신자들에게도 홍보하고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체별 행사와 계획을 발표하고 달력 점검 및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 교황, “휴대전화 보듯 성경을!”

- 말씀과 늘 가까이하며 악에 맞서는 힘 키우기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는 횡수만큼 성경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교황은 3월 5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삼종기도를 주례한 뒤 군중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만큼 성경도 읽으라고 권고했다.

교황은 “우리가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찾아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교황은 “성경은 악과 대항해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도록 지켜준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성경과 휴대전화를 비교하는 것은 분명히 아이러니지만,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준다”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지니면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아버지께로부터 멀게 하지 못하고, 어떠한 장애물도 선한 길로 향하는 우리를 막아지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황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사순 제1주일 복음을

상기시켰다. 이날 복음에서 사탄은 예수를 유혹해 순종과 겸손에서 벗어나 영광과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가도록 꼬드겼다. 교황은 “하지만 예수는 하느님의 말씀을 방패삼아 악마의 유혹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수가 자신의 말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이용해 악마의 유혹을 거절했으며 성령으로 가득 차 광야를 헤쳐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군중들을 한동안 바라보던 교황은 “40일의 사순 동안 예수의 발걸음을 따라 하느님 말씀의 힘으로 악에 대항하는 영적인 싸움을 펼치지”고 당부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성경과 친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교황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우리가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듯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잊지 말라”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은 언제나 시사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가톨릭 신문)

## 성 요셉 성월

###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 주소서.
- ◎ 아멘.



〈레니(Reni, Guido), '성요셉과 아기 예수'〉

교회는 해마다 3월을 ‘성 요셉 성월’로 지내고 있다. 성 요셉 성월은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인 요셉 성인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는 달이다. 요셉 성인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약혼자 마리아를 주님의 천사의 명령에 따라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의 조력자로 등장한다(마태 1,24 참조). 구세사에서 요셉 성인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다. 성경에도 그분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다. 의로운 사람으로 직업이 목수였고,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갈등했으며,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헤로데 임금의 폭정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했다는 몇몇 기록본이다(마태 1,19-23; 2,13-15; 13,55 참조).

그럼에도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은 초대 교회 때부터 매우 깊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3월 19일이 요셉 성인의 축일로 자리 잡은 것은 12세기 무렵이다. 예루살렘 성지를 이슬람에게서 탈환하려는 십자군은 요셉 성인을 공경하고자 나자렛에 교회를 세웠다. 그 뒤로 성인에 대한 공경과 축제는 주로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의 노력을 통하여 유지되고 전파되었다. 1479년에는 작은 형제회 출신의 식스토 4세 교황이 요셉 성인의 축일을 모든 교회로 확산시켰다. 1870년에는 비오 9세 교황이 요셉 성인을 ‘거룩한 교회의 수호자’로 선언하였고, 1955년에는 비오 12세 교황이 5월 1일을 ‘노동자들의 수호자 성 요셉 축일’로 정하였다.

CYO-News

## WorkCamp Preparation Workshop

26 CYO student participants, five adult leaders and support parents discussed and planned various activities for the upcoming WorkCamp 2017. Everyone was energetic and gave inputs to planned fund raising events; discussed talent show event. Finally, the theme of this year's WorkCamp "I Will Love" honoring St. Teresa was presented for the student participants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and purpose.

Next WorkCamp Workshop will discuss the weekly schedule and perform hands on training on power tools/saf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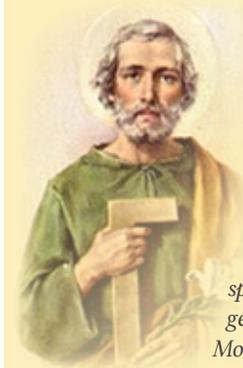
CCD-News

## First Communion class parents meeting

20 the First Communion parents had meeting on Wednesday night to plan the ceremony while students were in their class getting prepared by Catechist for the most important Sacrament in their religious life. The Sacrament will take on early May.



## PRAYER TO ST. JOSEPH, PATRON OF THE CHURCH



*St. Joseph!  
Always be our protector.  
May your inner spirit of  
peace, of silence, of good  
work, and of prayer for  
the cause of Holy Church  
always be an inspiration  
to us and bring us joy in  
union with your blessed  
spouse, our most sweet and  
gentle and Immaculate  
Mother, and in the strong yet  
tender love of Jesus, the glorious  
and immortal King of all ages and peoples.  
Amen.*

*Pope St. John XXIII*



## 2017 WORKCAMP FUNDRAISING

점심 같이 하실래요?

사랑 가득! 정성 가득!

## 비빔밥

- 일시 : 3월 19일 (일) 9am-1pm
- 장소 : 친교실

To Go 가능!  
단체주문도 환영!!

\$10



## ANNOUNCEMENT

### 1. Jr. High Lenten Retreat

- When : Mar 25 (Sat) 1pm - 6pm
- Register at the Hasang Lobby

### 2. CCD Open Class

- When : Mar 26 (Sun) 10am-11:15am
- Where : Hasang Building

### 3. First Communion Class Pilgrimage

- When : April 2(Sun)
- Where : Francisca Monastery

**1 사순 특강**

- 주제: 아버지 하느님과의 만남
- 강사: 이범주 바오로 신부
- 일시: 3월 28일(화) 오후 8시-10시 (7:30 미사 후)  
3월 29일(수) 특강 & 미사 / 오후 8시-10:30

**2 십자가의 길 기도**

- 사순시기 동안 매 주일 오전 9시 15분에 십자가의 길을 공동으로 봉헌합니다. 신자들께서는 조금 일찍 오셔서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시고 은총의 사순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3월 26일 파티마 / 4월 2일 성령기도회

**3 2017년 주교님 사목 보조(Bishop's Lenten Appeal) 약정**

- 알링톤 교구에서는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보조를 위한 기금을 약정받습니다. 2017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45,000입니다.
- 신자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하상회 모임**

- 일시: 3월 19일(일) 오전 11:30 (B-3,4)

**5 안나회 모임**

- 일시: 3월 19일(일) 오전 11:30 (A-1,2,3,4)

**6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3월 19일(일) 오전 11:40 (하상관 B-4,5)

**7 베드로회 정기모임**

- 일시: 3월 19일(일) 오후 1시 (B-1,2)

**8 꾸르실료 정기모임**

- 일시: 3월 24일(금) 저녁미사 후 (B-1,2)
- 꾸르실리사파 회원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은총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9 레지오 아치에스(봉헌갱신식) 행사**

- 일시: 3월 26일(일) 오후 1시-4시
- 장소: 본당
- 대상: 레지오 행동 및 협조단원

**10 K o C 정기모임**

- 일시: 3월 26일(일) 오전 11:30 (B-1,2)
- 문의: 김 버나드 (703) 342-2194

**11 요한회 월례회**

- 일시: 3월 26일(일) 오전 11:30 (B-3)
- 대상: 50대 교우
- 문의: 배석범 알베르도 (703) 477-3491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3월 19일(일)	사순 제3주일	십자가의 길(오전 9:15, 성당),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B-4,5), 베드로회(오후 1시, B-1,2), 꾸르실료 봉사자 교육(오후 1시, 하상관 #10)
20일(월)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아침 미사(오전 6시, 성당)
21일(화)	사순 제3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친교실),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친교실), 성령 기도회(오후 8시, 도서실)
22일(수)	사순 제3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첫영성체 교리(오후 7:45, 하상관), 학생 견진반(오후 7:45, 하상관)
23일(목)	사순 제3주간	아침 미사(오전 6시, 성당)
24일(금)	사순 제3주간	파티마 발현 100주년 기념 성모님 본당 순례(24일 오후 1시-25일 오전 6시), 평일미사(오후 7:30), 하상 성인학교(9:30, 하상관, 친교실), 꾸르실료, CLC, 울프레아, 바오로 자매 모임(20:00), 금육
25일(토)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아침 미사(오전 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하상 한국학교(오전 9:00-12:30, 하상관), CCD Jr High 피정(오후 1시)
26일(일)	사순 제4주일	아치에스(오후 1시, 성당), 십자가의 길(오전 9:15, 성당), KofC (오전 11:30, B-1,2), 요한회(오전 11:30, B-3), 꾸르실료 봉사자 교육(오후 1시, 하상관 10)

**12 선교부원 모집**

- 선교부 봉사를 원하시는 신자분들을 모집합니다.
- 신청: 매 주일 8시/10시 미사 후 선교 테이블 (친교실)
- 문의: 유재운 (703) 628-9314

**13 2017년 페루 부칼파 단기선교 봉사자 모집**

- 선교일정: 2017년 7월 7일(금) - 7월 14일(금)
- 문의 및 신청: 유재운 (703) 928-9314 선교 테이블(친교실)

**14 성경통독 참석자 모집**

- 본당 설정 25주년(2021년)을 준비하는 계획으로 성경(구약과 신약)을 통독하는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접수: 매주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지경수 요한 (571) 331-6047

**15 제1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봉사부 / K of C 주관)**

- 일시: 4월 30일(일) 오후 1시
- 장소: South Riding Golf Club
- 초, 중, 고 에세이 컨테스트 장학기금을 위한 골프대회입니다. 특별 구역부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문의: 김버나드 (703) 342-2194

**16 부활제대 장식꽃 봉헌 신청**

- 부활제대 장식을 위해 꽃을 봉헌해 주실 분은 성당 현관 입구 제대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K of C Car Raffle 판매**

- Car Raffle 티켓 판매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4월 29일까지)
- 자동차 5대, \$20,000 (현금) 상품이 있습니다.
- 판매된 기금은 청소년을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raffle 1장당: \$5)
- 문의: 김버나드 (703) 342-2194

**18 성바오로딸 도서 선교**

- 일시: 3월 18일(토), 3월 19일(일) 매 미사 전후
- 성바오로딸 수도회에서 본당을 방문, 다양한 도서와 CD, DVD 등을 전시 · 판매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9 '파티마 발현 100주년 기념 성모님' 본당 순례**

- 일시: 3월 24일(금) 오후 1시 - 3월 25일(토) 오전 6시
- 입당행렬식: 3월 24일(금) 오후 1시 (15분 전 도착)
- 기도 신청: 목주기도 참여 가능한 시간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미리 시인업을 하지 않아도 성모님이 머무시는 동안 언제든지 본당에 오시면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사순 제3주일 : 창세 14-19, 마태 5-6**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3월 23일(목) 오후 5:00-6:00  
3월 24일(금) 저녁 11:00-12:00  
3월 26일(일) 자정 12:00-1:00

- 가톨릭 뉴스
- **임 따라 한평생**: 첫사제 지휘자 백남용 신부, 가톨릭 합창단을 한국 최고의 수준으로 (4편)
- **톤즈에서 온 편지**: 남 수단 톤즈에서 봉사하는 젊은이의 영상 편지 "톤즈는 방학중"
- **다함께 성가를**: 이 솔라스티와 함께하는 성가 배우기

**The Light is ON for You**



사순 시기 동안 알링톤 교구와 워싱턴 대교구의 모든 성당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고해성사를 실시합니다. 가까운 성당을 찾아 가서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3월 12일 (사순 제2주일)

주일헌금	\$ 7,602.98
교무금	\$ 9,005.00
교무금(신용카드)	\$ 2,440.00
특별헌금	\$ 100.00
2차 헌금	\$ 0.00
<b>합계</b>	<b>\$ 19,147.98</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필(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명광(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토),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이창덕(비오), 김영진(베드로), 양소지(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김동분(아가타), 김경호(사도요한)
-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진(론지노), 이술(루시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병기(펠릭스), 윤벽침(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엘(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연(안드레아)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Pohanka Acura</b>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b>허진 변호사</b>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칼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안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보험/은퇴연금</b>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월리암)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b>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b>McLean Psychiatric Services</b>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케어피플 &amp; 호스피스</b>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찬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마태오 홍 종합보험</b> <b>메디케어</b>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b>스킨케어 소유</b>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파나) 703-992-7930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중미반점</b> 애난데일 예촌 옆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퍼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b>Landscape</b>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에스터'S 키친</b>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b>Penta Olympic Fencing Club</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b>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b>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시몽사진</b>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b>SEM Education</b>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b>웨딩사진 전문</b> www.soowonlee.com 이클라우디아 703-785-0900	<b>Folds &amp; Crafts</b> 종이접기, 한지공예 강사반, 취미반(성인, 어린이) 703-937-7878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작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